

2023년 국내 경제전망

오현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hyunheeoh@hanafn.com)

- I. 들어가며
- II. 글로벌 경제여건 및 전망
- III. 국내경제 여건 및 전망
- IV. 팬데믹 이후 새로운 균형을 찾아

1

■ 국문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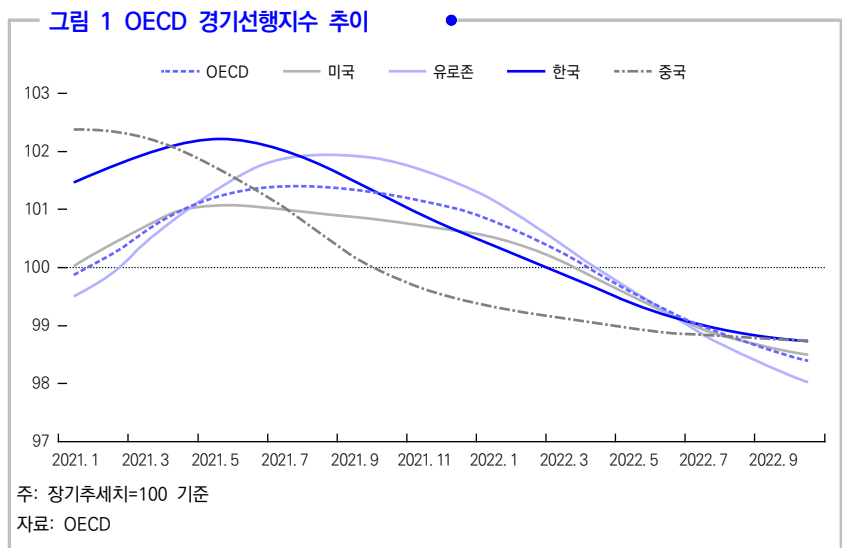
2023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주요국이 실시한 통화긴축의 여파가 나타나면서 성장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IMF는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2023년 국내경제 또한 올해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투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와 투자부진 지속 등으로 1.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주제어 : 경제전망, 글로벌전망, 국내경제전망

I. 들어가며

당초 올해 세계경제는 백신접종 확대,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요국의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대면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면서 교역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연초 예기치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세계경제는 하방위험이 높아지며 예상했던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었고 고물가에 따른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이 이어지면서 강달러로 인한 통화약세가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한 글로벌 통화긴축이 지속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향후 6~9개월 기간에 대한 경기순환 및 경기사이클을 판단할 수 있는 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정점을 통과하여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초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추세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심리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II. 글로벌 경제여건 및 전망

2022년 세계경제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확대, 통화긴축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주요국이 실시한 통화긴축의 여파가 나타나면서 성장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시행된 적극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 또한 제한되어있는 상황이다.

IMF는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중 선진국을 1.1%, 신흥국 3.7%로 예상하며, 선진국의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세계경제의 삼분의

일 가량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위험요인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성장률이 추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게오르기 IMF 총재는 12월 로이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경기후퇴 우려 등이 높아지면서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10월 전망보다 커지고 있음을 밝히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겠으나, 여전히 물가 수준 자체는 높은 고물가를 지속할 전망이다. IMF는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8.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5%로 올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물가압력 가중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계비 위기(the cost of living crisis)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내년도 선진국 경제는 물가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22년 7.2%→'23년 4.4%)되겠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력한 통화정책의 영향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 연준은 11월 공개된 의사록에서 3월 금리인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내년도 미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1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내년도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확률을 80%로 예상하였다. 특히, 유로지역은 올해 러·우 전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으로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신흥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위축과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방역 완화와 경기부양책 강화 등으로 올해 3.2% 성장에서 내년 4.4%로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7일 중국정부는 방역완화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중국의 소비 반등과 투자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수출둔화, 미·중간 패권경쟁 등에 노출되어 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등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다. 아세안이나 중남미 지역의 경우 교역 감소 및 대외불확실성의 영향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여력이 축소된 점 등이 성장의 하방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표 1 IMF 세계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세계	6.1	3.2	
선진국	5.2	2.4	1.1
미국	5.7	1.6	1.0
유로	5.4	3.1	0.5
일본	1.7	1.7	1.6
영국	7.4	3.6	0.3
한국	4.1	2.6	2.0
신흥개도국	6.8	3.7	3.7
중국	8.1	3.2	4.4
인도	8.7	6.8	6.1
러시아	4.7	-3.4	-2.3
브라질	4.6	2.8	1.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10

III. 국내경제 여건 및 전망

1. 경제성장률

2022년 국내경제는 건설과 설비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는 수출 증가, 하반기 중에는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2.7% 성장이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축과 반도체 경기둔화, 건설투자는 건설자재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수요회복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러·우 전쟁과 통화긴축의 파급효과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낮아진 모습이다. 반면, 수입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국내경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투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로 올해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통화긴축과 해외수요 위축 등으로 세계성장률과 교역량이 모두 둔화되면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투자부진 또한 지속되면서 1.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표 2 2023년 지출부문별 경제전망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실질 국내총생산(GDP)	4.1	2.7	1.8
민간소비	3.7	4.5	2.6
설비투자	9.0	-4.0	-0.2
건설투자	-1.6	-2.5	0.5
경상수지(억 달러)	883	230	200
통관수출	25.7	7.0	1.0
통관수입	31.5	20.1	-4.5
소비자물가(%)	2.5	5.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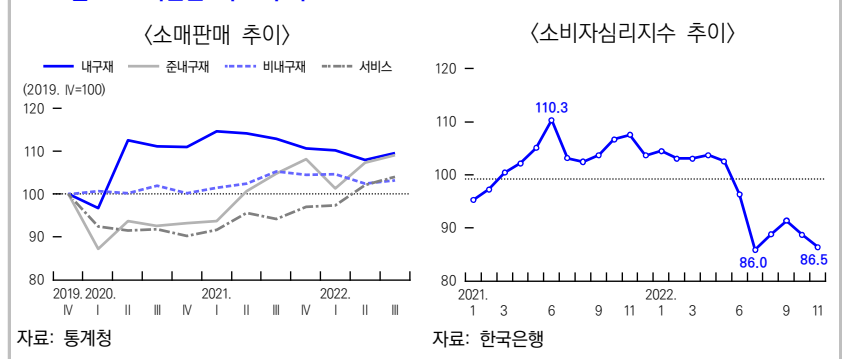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2022~2023년 전망은 필자 전망

2.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코로나19와 거리두기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서비스소비와 국외소비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투자와 수출 부진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상승 및 금리급등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저하로 올해보다 낮은 2.6% 성장이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된 이후 재화소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회복속도가 늦은 모습이며, 국외소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방역조치 완화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대면활동 본격화가 서비스소비 확대에 영향을 줄 전망이고, 팬데믹 이후 급감하였던 해외여행객이 빠르게 늘면서 거주자 국외소비(해외소비) 또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소비관련 지표 추이



3. 투자

설비투자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을, 건설투자는 0%대의 낮은 성장을 이어가며 투자부문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올해에 이어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금리상승이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친환경·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증가로 비IT부문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부진이 이어지는 IT부문의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며 투자 부진을 이끌었던 건설자재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과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작용하면서 0.5%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4. 대외부문

통관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2021년부터 두자릿 수의 증가세를 지속해왔으나, 올해 하반기 글로벌 긴축과 교역 신장률 둔화 등으로 한자릿 수로 성장세가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10~11월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수출경기가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신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긴축의 파급효과 등으로 수출 물량 증가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단가하락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는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점차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회복세 자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흑자폭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5. 소비자물가

내년도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공급측 상승압력이 완화되고, 국내 경기 하방압력 확대 등으로 수요측 상승압력 또한 완화되면서 올해보다 낮은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성 확대, 기대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등 물가 불안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IV. 팬데믹 이후 새로운 균형을 찾아

6. 금융시장

내년도 금융시장은 글로벌 통화긴축이 지속되면서 고금리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가정점론과 경기침체론 등이 부상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글로벌 통화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 주요국 중앙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정책기조나 물가안정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한 이후 경기 둔화 등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낮아져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높은 기준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올해보다 높은 금리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원/달러 환율은 올해 지속된 달러강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달러강세 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국내 무역수지 적자 개선, 세계채권지수에 국제 편입 기대 등은 외화 수급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여 원/달러 환율의 안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대응과정에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물적·인적 교류의 제한, 대면활동의 위축 등을 겪어야 했으며, 전례 없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경험하였으며 가파른 금리상승을 목도해야만 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팬데믹 이전 저물가·저금리 환경과 다른 높은 수준의 물가, 금리, 환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러·우 전쟁과 공급망 재편 등의 갈등을 겪으며 글로벌 협력관계가 훼손되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화된 금융환경과 글로벌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 또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시기로 보인다.

참고문헌

1. 2023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2.10
2.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22.10